

大學生的 政治的 態度*

田 溶 新
高麗大學校 心理學科

이 研究는 Eysenck (1954)의 "Inventory of Social Attitudes"를 改案한 Melvin 의 "Factors R and T Public Opinion Inventory"를 韓國版으로 改定함과 同時에 이 尺度에 依한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를 測定하는데 目的이 있다. 尺度構成의 理論的 背景은 全的으로 Eysenck (1954, 1957, 1965)에 따랐다.

意見調查書構成

Melvin 의 尺度의 問項 中에서 유대人, 敎會, 유력避難民에 관한 것은 韓國社會에 適合하지 않으므로 4個問項을 除去하고 Melvin 에서는 採點되지 않았던 問項番號 44, 50, 66 과 새로 作成한 問項番號 67 을 穩健—強硬 面에서 追加하고 其外 採點되지 않는 問項을 合쳐 80 個 問項의 意見調查書를 作成했다. 問項分析을 爲해 高大生 370 名에게 實施하여 內的合致度檢證을 各各 2個面에서 檢證하여 滿足한 結果를 얻었다. 따라서 採點되지 않는 問項 中에서 大學生 社會와 距離가 있는 3 個問項만을 代替하여 最終 80 個問項의 意見調查書를 確立시켰다.

本 意見書의 信賴度는 92 名의 被驗者에게서 修正된 半分信賴度가 $r_R = .73$, $r_T = .73$ 이었고, 60 名의 被驗者

에게서 얻은 再檢信賴度는 $r_R = .75$, $r_T = .77$ 이었다. 穩健—強硬, 急進—保守의 兩尺度間의 相關은 370 名의 被驗者에게서 $r = -.04$ 를 얻었다.

大學生 政治態度 調查

最終 意見調查書를 5 個 大學 低學年 全集에게 實施하였다. 總被驗者數는 5,883 名이었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政治的 態度의 全體的 傾向은 急進—保守 面에서 平均 5.5, 標準偏差 2.98, 穩健—強硬 面에서 平均 11.7, 標準偏差 4.48 을 얻었다. 家庭環境을 上, 中上, 中, 中下, 下의 5 段階로 나누어 $N=1,000$ 에서 $r = -.04$ 를 얻었다. 父母의 敎育程度를 大, 高, 中, 國, 其他로 나누어 $N=1,000$ 에서 $r = .11$ 을 얻었다. 家庭의 收入은 10 萬圓 以上, 5 萬圓 以上, 4 萬圓 以上, 3 萬圓 以上과 未滿의 5 段階로 나누어 $N=1,000$ 에서 $r = -.01$ 을 얻었다. 外國資料와의 比較로는 Eysenck(1954)의 結果와 圖 1 과 같이 比較된다. 國內研究와의 比較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研究가 田溶新等(1960)과 崔武鉉(1966)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 研究와 比較하면 急進—保守에서는 別差異가 없으나, 穩健—強硬에서는 年代順으로 平均尺度值가 14.1, 11.6, 그리고 11.7 이어서 1966 年과 現在와 意義 있는 差가 있어 強硬쪽으로 치우쳐 진다.

參 考 文 獻

- 田 溶新 · 金 令輝. 革命的 心理. 韓國일보, 1930. 9. 19 日刊.
- 崔 武鉉. 社會的 態度尺度의 呈 延大生과 高大生. 未出版, 卒業論文, 高麗大學校文科大學心理學科, 1966.
- Eysenck, H.J. *The psychology of politics*. London: Kegan Paul, 1954.
- Eysenck, H.J. *The sense and nonsense in psychology*. London: Penguin Books, 1957.
- Eysenck, H.J. & Rachman, S. *The cause and cures of neurosi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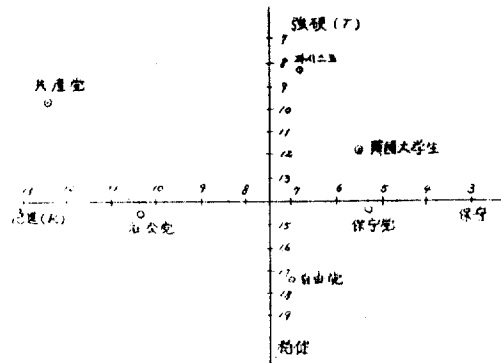


圖 1. 英國政黨과 韓國大學生의 R 點 T 點 比較

* 이 研究의 全體報告는 高麗大學校 論文集 1969 에 掲載되어 있음

意 見 調 查 書

다음에는 學校, 慣習 또는 社會에 關한 여러가지 意見이 있습니다. 다음 요령으로 表하여 주십시오.

	++	+	○	-	--
① 당신이 매우 찬성하는 의견에는	■				
② 당신이 찬성하는 의견에는.....		■			
③ 당신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에는.....			■		
④ 당신이 반대하는 의견에는.....				■	
⑤ 당신이 매우 반대하는 의견에는					■

1 번부터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해 나가십시오.

	++	+	○	-	--
1. 우리 大學校에서도 女學生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		
2. 우리나라 現實로 보아 大學生의 數가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					
3. 大學生이 現實政策에 對하여 批判的인 것은 當然하다.					
4. 人生을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무리다. 人生의 보다 더 自由로운 발전을 위하여 大學의 시험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5. 옷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					
6. 우리 學校에도 물러가야 할 教授가 있다.					
7. 男子가 난봉을 피우는데 女子는 안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8. 國民을 위하여 國家가 존재하는 것이지, 國家의 이익을 위하여 國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9. 언젠가는 私有財產制度는 폐지되고 완전한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될 것이다.					
10. 어린이 유괴살해는 金錢문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11. 나라의 主權의 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平和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生産과 무역은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13. 越南戰爭은 언젠가는 民主主義의 勝利로 끝날 것이다.					
14. 法을 고쳐서라도 좀더 離婚을 쉽게 하여야 하겠다.					
15. 生存競爭의 패배자는 출세한 사람의 동정이나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					
16. 한국의 學生들은 너무 많은 규율에 통제되어 있으며 기성인들의 도덕관에 얽매어 있다.					
17. 暴力犯은 이유를 가릴 것 없이 10년징역 이상의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한다.					
18. 基幹産業 기구의 國有化는 능률저하와 關稅화 및 침체화를 초래하기 쉽다.					
19. 어쩐지 白人을 보면 好感이 간다.					
20. 男女가 결혼전에 시험적 동거생활로 서로 性的으로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당 있어야 할 일이다.					
21. “좋아도 내 나라, 나빠도 내 나라”란 말은 원칙적으로 좋은 태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2. 사람들은 대개 宗教 없이도 그런대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					
23. 黑人은 白人이나 黃色人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하다.					

○전공학과 _____ ○學年 _____ 年 ○父 또는 母의 職業 _____
 [以下 하나에 V표] ○당신의 家庭환경: (1) 上流階級 (2) 中上流階級 (3) 中流階級
 (4) 中下流階級 (5) 下流階級 ○父 또는 母의 教育받은 年限: (1) 大卒 (2) 高卒 (3) 中卒
 (4) 國卒 (5) 其他 ○家庭의 收入: (1) 月 10萬원 以上 (2) 月 5萬원 以上 (3) 月 4萬원 以上
 (4) 月 3萬원 以上 (5) 月 3萬원 未滿

- | | | | | | |
|--|--|--|--|--|--|
| 24. 일단 죽으면 그만이지 來世란 없다. | | | | | |
| 25. 死刑이란 형벌은 야만적이니 폐지해야 한다. | | | | | |
| 26. 原子彈을 폭발시켜 죄 없는 부녀자를 수없이 죽여버리는 일같은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고 우리의 文明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27.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 | | | | |
| 28. 의사가 권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產兒制限은 일체 불법화해야 한다. | | | | | |
| 29. 不治의 病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죽게 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 | | | | |
| 30. 資本主義는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그 생산노동에 상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착취를 일삼기 때문이다. | | | | | |
| 31. 우리는 武力을 써서라도 南北統一을 꼭 성취시켜야 한다. | | | | | |
| 32. 宗教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유를 묻지 말고 믿어야 한다. | | | | | |
| 33.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自由를 주어야 하고 사회는 어떤 종류의 간섭도 해서는 안된다. | | | | | |
| 34. 우리나라 사람과 제일 가까운 것은 中國人이다. | | | | | |
| 35. 평화시대라 할지라도 兵役義務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 | | | | | |
| 36. 男女間의 개방적인 性關係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으니 장려해야 한다. | | | | | |
| 37. 日本人은 천성이 교활한 사람이니 경계심을 갖고 대하여야 한다. | | | | | |
| 38. 강간과 같은 性的 犯罪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여야 한다. | | | | | |
| 39. 새빨간 거짓말도 유익할 때가 있다. | | | | | |
| 40. 神은 人間이 꾸며낸 것이다. | | | | | |
| 41. 宗教人은 대개 위선자이다. | | | | | |
| 42. 정식 夫婦間 이외의 性關係는 언젠고 나쁘다. | | | | | |
| 43. 사회조직과 경제구조를 뜯어 고쳐야만 우리는 가난을 면할 수 있다. | | | | | |
| 44. 信仰의 길만이 오늘의 文明을 구출할 수 있다. | | | | | |
| 45. 자기나라보다 남의 나라를 더 좋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나쁘다. | | | | | |
| 46. 판잣집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강제로 철거하여야 한다. | | | | | |
| 47. 生存競爭은 낙오자를 도태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참 잘된 일이다. | | | | | |
| 48. 어떤 형태의 世界機構에 가입하든지, 나라의 獨立이나 主權은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 | |
| 49. 요즈음엔 自己와 상관 없는 일을 캐내어 알려고 드는 사람이 많다. | | | | | |
| 50. 학교에서 宗教教育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고도 정당한 일이다. | | | | | |
| 51. 落島와 같은 외딴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國家에서 충분한 보조를 주어 | | | | | |

- 야 한다. || || || || ||
52. 우리의 犯罪者에 대한 조처는 너무도 가혹하다. 우리는 그들을 고쳐주려고 애써야 한다. || || || || ||
53. 宗教는 현대사회 내의 나쁜 風潮를 막아내는 방패이다. || || || || ||
54. 善意의 독재는 비능률적인 民主主義보다 낫다. || || || || ||
55. 차장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때로 無賃乘車를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 || || || ||
56. 人生은 짧다. 그러니 최대한으로 향락하는 것이 마땅하다. || || || || ||
57. 大學生이 현실문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일이다. || || || || ||
58.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戰爭을 치르기 보다는 낫다. || || || || ||
59. 4·19 의거는 역사에 빛나는 민족적 절기였다. || || || || ||
60.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람과는 다른 神人이다. || || || || ||
61. 심한 유전성 병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62. 宇宙는 神이 창조하였다. || || || || ||
63. 낚시, 사냥같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오락이니 禁止하는 것이 마땅하다. || || || || ||
64. 全國民의 自由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65. 政府가 국민의 의사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 할 때는 國民은 반대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 || || || ||
66. 우리나라에는 思想家나 學者 보다는도 技術者나 實業者가 더 필요하다. || || || || ||
67.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는 限이 있더라도 養老院과 孤兒院에는 좋은 시설을 해주어야 한다. || || || || ||
68. 宗教는 국민생활에 좀더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69. 弱한 者를 돕는 것은 適者生存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 || || ||
70. 勞動賃金은 일한 분량을 따져 줄 것이 아니라 일한 時間에 의하여 지불해야 한다. || || || || ||
71. 5·16과 같은 軍人革命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 || || || ||
72. 정부는 최소한 국민의 衣食住와 의료의 네 가지를 절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 || || ||
73. 장래 잘 살기 위하여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장래는 어떻게든 지금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 || || || ||
74. 똑똑하지 못하여 남에게 꽤만 끼치는 사람은 죽어 버리는 것이 좋다. || || || || ||
75. 사소한 不正은 참는다 해도 民主主義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不正選舉만은 참을 수 없다. || || || || ||
76. 어떤 宗教的 理由로 執拗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다. || || || || ||
77. 戰爭을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 || || || ||
78. 중요한 國家政策의 최종결정은 國民投票 등을 통한 國民全體가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 || || ||
79. 남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은 子孫의 대에 가서라도 천벌을 받는다. || || || || ||
80. 四寸間이 넘으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